

고난은 당연히 있어

<데살로니가전서 2:10-20>

10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11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2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13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14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15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6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17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18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 두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19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나

20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 묵상하기

믿음의 삶에는 언제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영적공격이 뒤따릅니다. 바울을 비롯한 유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동족인 유대 사람들에게 핍박과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후발주자인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을 배척하는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뿐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 이상하다고 여기지 말고 모든 믿음의 선배가 걸어온 길을 나 또한 따라간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걸어야 합니다. 고비 고비마다 사탄이 우리를 막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 고되겠지만, 그 발자취가 분명 마지막 날에 나의 면류관이고 자랑이 될 것입니다.(19절)

★ 적용하기

잠깐 사는 이 땅에서 고난이 싫다고 피해 다니며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담대하고 거룩한 자녀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내가 배우고 묵상한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이제 이 말씀에 내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눈 돌리게 하고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유혹과 공격에도 담대하기 바랍니다.

★ 생각하기

- 나는 Q.T나 설교, 성경공부 등을 통해 읽고 듣는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나요? '좋은 말씀'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나요?

- 그동안 나는 고난을 요리조리 피하려고만 하지 않았나요? 크리스천에게는 고난이 당연한 것임을 알고 오늘 담대하게 마주할 일은 무엇인가요?